

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<h2>배포시부터 보도 가능</h2>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, 금융시장분석과, 자본시장과, 중소기업과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, 은행감독국, 금융투자감독국, 저축은행감독국, 상호여전감독국, 기업공시제도실, 금융상황분석실		
책 임 자	권대영 과장(2156-9710) 손주형 과장(2156-9730) 이형주 과장(2156-9870) 신진창 과장(2156-9850) 류태성 국장(3145-8170) 류찬우 국장(3145-8020) 조국환 국장(3145-7580) 장병용 국장(3145-6770) 박상춘 국장(3145-7550) 오영석 실장(3145-8420) 김동성 실장(3145-7500)	담 당 자	서 준 사무관(2156-9713) 태현수 사무관(2156-9733) 김태훈 사무관(2156-9873) 박진애 사무관(2156-9853) 이 진 팀 장(3145-8590) 박상원 팀 장(3145-8045) 유진혁 팀 장(3145-7610) 김민수 팀 장(3145-6773) 정용걸 팀 장(3145-7447) 황선오 팀 장(3145-8440) 장순택 팀 장(3145-7495)
배 포 일	2015.12.9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6대

제 목 :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

- 12.9(수)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

※ 금융위·금감원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요

▲ 일시 / 장소 : '15.12.9(수) 08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▲ 참석자

- (금융위) 사무처장(주재), 금융정책국장, 자본시장국장, 금융정책과장, 자본시장과장, 금융시장분석과장, 중소기업과장
- (금감원) 김영기 부원장보, 거시감독국장, 은행감독국장, 금융투자감독국장, 저축은행감독국장, 상호여전감독국장, 기업공시제도실장, 금융상황분석실장

▲ 주요 논의안건 : 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, ② 제2금융권 건전성 현황 및 대외 리스크 대응여력, ③ 회사채시장 상황 및 대응방안 등

<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>

-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12.15~16일 개최 예정인 美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는 모습
 - 12월 美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, 위험자산 회피심리 등으로 선진국·신흥국 전반의 주식·채권시장이 부진한 흐름 시현
 - * 11월~12.8일중 주가지수 증감 : (MSCI 신흥국지수)△6.2%, (MSCI 선진국지수)△2.1%
 - 11월~12.8일중 국제금리(10y) 증감 : (EMBI 신흥국 채권지수)+9.7bp, (美)+7.8bp (獨)+5.3bp
 - 국내 금융시장도 대외 불안요인 확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 순매도,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
 - * 11월~12.8일중 주가 및 채권금리 증감 : (코스피) △4.0%, (3년물 국제금리) +10.6bp
- 한편, 12.3일 유럽중앙은행(ECB)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(Great Divergence)가 주요 이슈로 본격 부각
 - 12월 美 FOMC 회의 이후,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이 급변할 가능성 상존

- ➔ 美 금리인상 등 굵직한 대외 이벤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이슈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

< 韓 금융건전성에 대한 평가 >

- (건전성) 국내 금융권 전반의 자본적정성·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美 금리인상 및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훼손 가능성도 제한적
 - 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는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한층 개선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견고한 완충여력을 확보

- '15.9월말 기준,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*는 규제기준의 약 2~3배 수준을 유지

-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**도 133.1%로 양호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

* '15.9월말 [규제비율] : (은행) BIS비율 13.96[8], (보험) 지급여력비율 284.8[100], (증권) NCR 405.4[150]

** 은행 대손충당금/고정이하여신(%) ('13년) 120.5 → ('14년) 124.0 → ('15년9월) 133.1

< '08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자본적정성 지표 비교 >

(단위 : %, %p)	규제기준	'08년말(A)	'15.9월말(B)	B-A
은행 BIS 비율	8.0	12.31	13.96	1.65
보험사 지급여력비율 ¹⁾	100.0	220.6	284.8	64.2
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²⁾	150.0	584.2	405.4	△178.8
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	7.0 ³⁾	9.28	14.31	5.03
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	8.0	23.92	26.41	2.49

주 1) '11.6월부터 현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산출, '08년말 수치는 (구)지급여력비율 기준
2) 新NCR을 조기적용하고 있는 9개 증권사의 경우 기존 NCR산출방식으로 변환하여 산출
3) 자산 2조원 이상, 자산 2조원 미만은 6%를 적용

- (스트레스 테스트) '08년 금융위기시 손실을 등을 반영한 금융권역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,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권은 적정 자본수준 및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
- 향후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융권의 충격 대응여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
- (대응방향) 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성 제고, 유동성 확보 등을 지속 지도해 나갈 계획
- 특히,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금융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에는 자본확충 권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
- 아울러, '시스템적 중요은행(D-SIB)', '경기대응완충자본'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

< 최근 금융권역별 건전성 강화 조치 추진현황 >

- ① (은행) '15.10월 건전성 분류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지도 등
- ② (외환) '15.11월 외환·외화자금시장 현황 및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점검
- ③ (보험) '15년중 재무건전성 취약 보험사에 대하여 자본확충 지속 지도
- ④ (금투) '15.10월 증권사 유동성 확충지도 및 '15.12월 자본적정성 점검 진행 중
- ⑤ (상호금융·여전사·저축은행) '15.10.21일, 향후 시장불안에 따른 손실확대 등에 대비하여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등 권고

< 제2금융권(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전사 등) 건전성 점검 결과 >

※ 금번 회의에서는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전사 등 제2금융권 건전성 상황을 집중 점검

- 제2금융권의 주요 건전성 지표는 '12년 이후 꾸준히 개선세를 보이는 등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는 모습
- (자산건전성) 저축은행*, 상호금융, 여전사 모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꾸준히 개선

* 저축은행이 클린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감축한데 주로 기인

<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>

(단위 : %, %p)	'08년말(A)	'12년말	'13년말	'14년말	'15.9월말(B)	B-A
저축은행	9.02	21.67	21.78	15.72	11.63	2.61
상호금융	1.80	2.43	2.82	2.50	2.11	0.31
카드사	2.93	1.27	1.25	1.22	1.14	△1.79
非카드사 ^{*)}	2.70	3.45	3.24	3.03	2.54	△0.16

주 : 리스사, 할부금융사, 신기술금융사

- (자본적정성)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, 상호금융 및 여전사도 규제기준 상회

< 업권별 자본적정성* 추이 >

(단위 : %, %p)	'08년말(A)	'12년말	'13년말	'14년말	'15.9월말(B)	B-A
저축은행(자기자본비율)	9.28	8.36	11.10	14.01	14.31	5.03
상호금융(순자본비율)	6.45	7.51	7.62	7.73	7.80	1.35
카드사(조정자기자본비율)	23.92	25.80	27.76	27.33	26.41	2.49
非카드사(조정자기자본비율)	14.50	15.50	15.90	16.08	16.62	2.12

* 업권별 규제기준은 저축은행 6~7%, 상호금융 2~5%, 카드사 8%, 非카드사 7%

- (여전사 유동성) 여전사의 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, 단기간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
- (대응방향) 향후에도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위기 발생시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토록 감독할 계획

< 최근 회사채 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 >

□ (현황) 최근 회사채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, 회사채 스프레드가 큰 폭 상승하는 등 회사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

- * '15.4분기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 152%로 전년대비 △89%p 감소
- * 국고채 대비 회사채 스프레드(AA-, 3년) : ('15.6말)31.2bp → ('15.11말)54.5bp

○ 이는 기관투자자들의 美 금리인상을 앞둔 관망세 및 연말 북클로징 (book-closing) 효과,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

○ 다만, 시장위축이 장기화되거나 기업 자금조달의 경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일반적 평가

□ (대응방향)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, 회사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

- ① 기업 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여, 회사채시장 신용 위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
- ②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
 - 민간연기금투자펀드 등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들의 회사채 수요를 촉진하고, 회사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방안 마련
- ③ 회사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과도한 시장 충격, 기업 자금 경색 등이 나타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

< 최근 우리 주식시장 현황 및 평가 >

□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결정을 앞둔 경계감 등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*한 가운데, 유가 하락, 중국 경기 불안감 등 대외요인에 따라 1,950~2,050p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

- * 일평균 거래대금 : ('15.7월)6.8조원 → (12월)3.9조원
- * KOSPI 지수(p) : ('15.11.3)2,048 (11.16)1,943 (11.26)2,030 (12.8)1,949

○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자금 유출,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우려 등으로 11월 이후 매도세

- * 외국인 순매수(조원) : (9월)△1.7 (10월)+0.7 (11월)△1.9 (12.1~8)△1.1

□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관망세를 이어가며 美 금리인상 이슈, 신흥국 불안 등 대외변수에 투자심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

□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대외요인 등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,

○ 우리 증시의 안정된 수요기반을 확보하고, 외국인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

① ISA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*(12.2)한 만큼, 상품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

- * 당초 정부안 대비 가입대상 확대(근로·사업소득 있는자 → 농어민 추가), 일정소득 이하계층 비과세한도 확대(200→250만원) 등

② 지난 9.1일 출범한 민간연기금 투자펀드(11월말기준 5,500억원 조성)에 사립학교, 공제회 등 참여를 적극 유도

③ 외국인 ID 제도 개선 등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

- * 지난 12.1일 관계기관(금융위, 기재부, 거래소) 합동으로 MSCI를 방문하여 선진지수 편입 관련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